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1. 러극동 최대항만 보스토치니, 2020년까지 견고한 성장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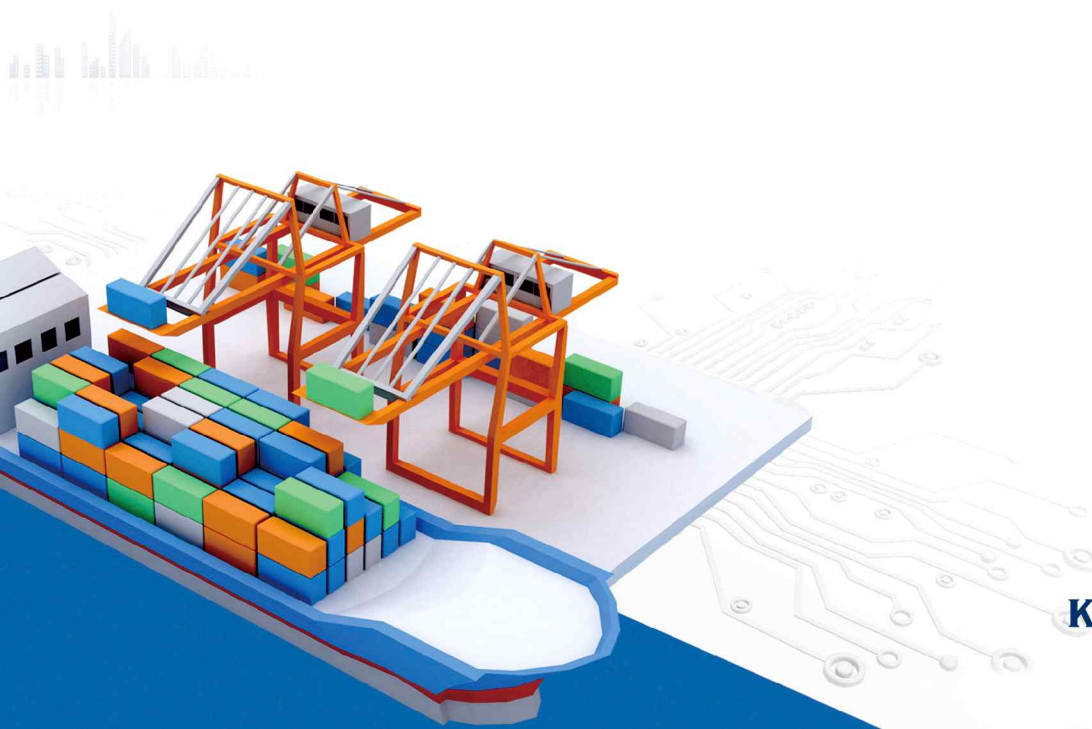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네덜란드 항만, 선박 청소로봇 운영
2. 중국, 지난 한해 항만에 200억 달러 투자
3. 중국 신실크로드, 국제교역 촉진 및 보험시장 활성화 기대
4. 물류부문의 규제 완화, 베트남 물류시장의 중요 해결 과제
5. 상트페테르부르크항 컨테이너 물동량, 올 상반기 러시아 1위

명사 스피치

“...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국회는 민간영역에서 뛰는 분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...”

김한정 / 국회의원
(2017. 7. 17 / 국회 해양문화포럼 주최 창립토론회에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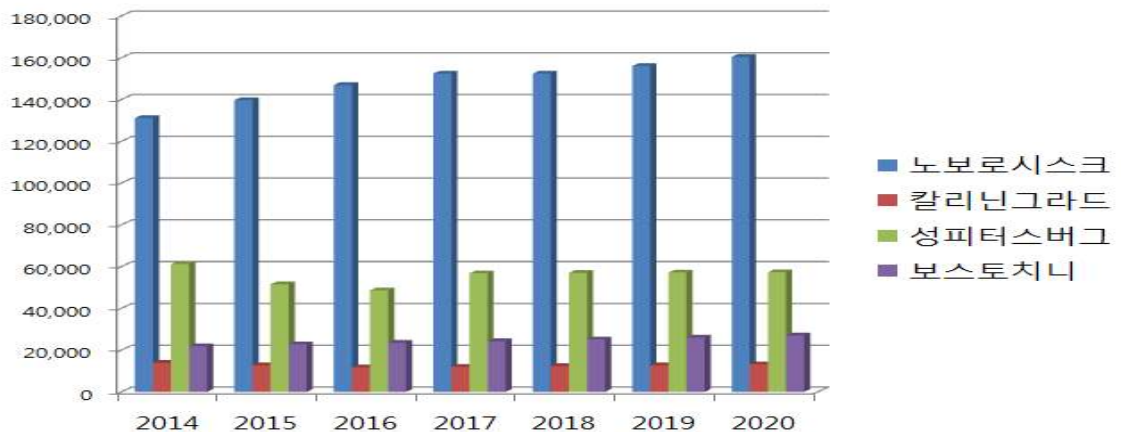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러극동 최대항만 보스토치니, 2020년까지 견고한 성장 전망

(단위 : 천 톤)

러시아 주요 항만의 물동량 전망(2020년)



자료 : BMI Report, 2017. 06.

주 : 2016년까지는 추정치, 2017년 이후는 전망치임.

- 러시아 경제가 2013~2015년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러시아 주요 항만의 물동량도 2017년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
 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제재, 유가 및 루블화 폭락으로 2013~2015년간 일인당 GDP가 40% 가까이 폭락하는 등 심한 경제난을 겪었으나 2016년 초반부터 회복세로 돌아섬
 -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던 성피터스버그(-5.6%), 칼리닌그라드(-7.8%) 등 주요 항만의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
- 러시아 극동의 최대 항만인 보스토치니는 러시아의 다른 항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음
 - 2014년도 물동량은 2,184만 톤으로 22.7%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4.3%, 3.2%의 성장률을 기록함
- 보스토치니항의 꾸준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이어져 2020년 물동량은 약 2,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 - 이와 같은 전망치는 2017년 이후 해마다 1백만 톤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, 물동량 증가에 따른 러시아측의 시설 확장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

박성준 전문연구원
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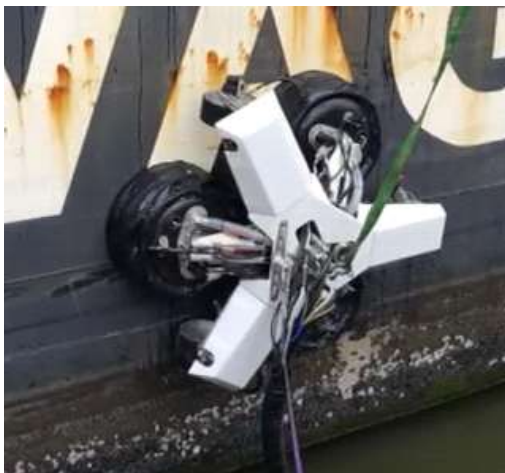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네덜란드 항만, 선박 청소로봇 운영

- 네덜란드의 선박 청소 전문업체인 Fleet Cleaner사는 최근 혁신적인 선박 청소로봇을 네덜란드 항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
- 로봇 운영지원 선박의 통제실에 있는 작업자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박 청소가 가능함
 -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청소함에 따라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거의 0%로 낮출 수 있음
 - 또한 바다위에 떠있는 운영지원 선박에서 직접 육안 또는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청소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함
- 선박 청소로봇을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선박 대기시간 감소 및 CO₂ 배출 저감이 가능함
 - 화물 양적하 작업 시 선박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추가로 필요한 청소시간을 줄일 수 있음
 - Fleet Cleaner사의 Lodewijk Middelburg씨에 따르면, 전장이 350m인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선박 청소로봇을 이용하여 하루 약 14MT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10,000대의 자동차가 하루에 발생시키는 CO₂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함

Fleet Cleaner의 선박 청소로봇 작업 모습 (좌: 수상, 우: 수중)



자료 : Fleet Cleaner YouTube,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hnVCoFexR4>

■ 참고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7.7.14.

강무홍 전문연구원

051-797-4684, mkang@kmi.re.kr



중국, 지난 한해 항만에 200억 달러 투자

- 중국이 지난해부터 해외 항만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두 배나 상승한 200억 달러로, 이를 통해 자국의 해양력 및 경제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영국 투자은행 Grisons Peak사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이미 투자 했거나 향후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해외 항만은 총 9개인 것으로 나타남
- 현재까지 4개의 말레이시아 항만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
 - 72억 달러 규모의 Melaka 게이트웨이 프로젝트
 - 28.4억 달러 규모의 Kuala Linggi 항만 프로젝트
 - 14억 달러 규모의 Penang 항만 프로젝트
 - 1억 7,700만 달러 규모의 Kuantan 항만 프로젝트
- Ningbo-Zhoushan 항만당국은 인도네시아의 Tanjung Priok 항만 확장 개발 프로젝트인 Kalibaru에 5억 9,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
- 또한 항만 운영사 China Merchant는 리투아니아 Klaipeda에 신규 대형 컨테이너 항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
 - 이 외에도 중국 기업들은 노르웨이의 Kirkenes 항만 및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2개 항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현재까지 중국이 투자한 항만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들 모두가 “블루경제통로(Blue economic passage)”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이는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명칭한 것으로 중국-인도양-아프리카-지중해, 중국-오세아니아-남태평양 및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통로를 포함하고 있음
 - 중국 정부는 이 블루경제통로가 일대일로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
-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해외 항만 프로젝트 투자는 향후 북극권을 통한 새로운 항로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■ 참고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7.7.17.

이기열 전문연구원
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



중국 실크로드, 국제교역 촉진 및 보험시장 활성화 기대

-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핵심요소는 정치적 대화와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긴밀한 무역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임
 - 중국은 국가의 외교 및 무역 정책에서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인프라 확충 계획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음
 - 중국 정부는 2014년 실크로드 기금으로 40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과 BRICS개발은행의 자금 지원도 받고 있음
 - 관련 국가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. 중국과 벨라루스는 14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지원에 합의했음. 또한 중국은 헝가리와 세르비아 간의 철도 연결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. '일대일로'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9,000억~1조1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
 - 한편 2011년 중국 충청과 유럽 간 철도가 연결된 이후 해당 화물열차 이용량이 급증했음. 2015년까지 중국-유럽 노선을 이용하는 화물열차는 815대로 전년대비 165% 증가했음
- 실크로드로 인해 주변국의 경제성장과 국제교역 촉진이 기대됨
 - 중국 정부에 따르면 '일대일로' 노선을 따라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규모는 9,5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무역의 25%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내에 무역 규모는 2.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 -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유럽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. 유라시아의 인프라 확장은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의 운송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
 - 그러나 기회뿐만 아니라 위험도 존재함. 신용평가회사인 Fitch ratings agency는 실크로드에 포함된 많은 국가들의 신용도가 극도로 낮다고 경고했음.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, 이라크, 예멘, 시리아, 라오스, 타지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됨
 - Fitch에 따르면 이러한 주변국 리스크로 인해 프로젝트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국은행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"일대일로" 프로젝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음
 - 즉 해상실크로드(Maritime Silk Road)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임
 -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국제무역의 세계화와 자유화를 개척하고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
- 실크로드 주변국의 보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실크로드에 포함된 지역은 육지와 해상으로 연결될 60개 이상의 국가와 함께 4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높은 개발시장임. 이는 중국 및 기타 보험시장, 특히 해상보험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
 - 중국의 "일대일로" 프로젝트는 철도, 파이프라인 및 항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일종의 현대식 실크로드이며 이는 국제교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
 -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단계에서 중국 해상보험 시장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보험 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해양선박보험 시장으로 성장했음



-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심화로 인해 무역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화물 보험사는 2014년 이후 보험료 감소를 경험한 바 있음
- 신실크로드에 관련된 대부분의 국가는 보험 보급률이 1% 미만에 불과하고 2016년 전세계 손해보험료의 15.5% 수준임. 이또한 중국을 제외하면 6.6% 수준에 불과함
- 해상, 항공, 운송 보험의 경우 2016년 세계 점유율 20% 수준으로 다소 있지만, 전세계 GDP 점유율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임
- 따라서 아시아 보험시장은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보험을 비롯한 보험업계의 성장이 예상됨

■ 참고자료 : hellenicshippingnews.com, 2017.7.12.

박성화 전문연구원

051-797-4614, shpark83@kmi.re.kr



물류부문의 규제 완화, 베트남 물류시장의 중요 해결 과제

-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rant Thornto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물류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Grant Thornton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물류시장에 대한 투자효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
 - 이는 베트남 국민의 개인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구매력 향상 및 물류서비스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임
 - 또한 베트남 내 물류부문에서 발생하는 연간비용 370~400억 달러 중 외국기업이 점유하는 비용이 300~350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매우 높으며, 향후 외국기업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
 - 베트남 총리 응웬 쉐언 푸크(Nguyen Xuan Phuc)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신,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음
 - 응웬 쉐언 푸크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, 점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부문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베트남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
 - 베트남 정부는 과거 외국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했으며, 외국기업의 지분율을 최대 49%로 제한했음
 - 이후 2014년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합작 투자 규제를 해제한 바 있으나, 컨테이너 및 화물운송, 보관 등 물류산업의 핵심부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제한하고 있음
- 물류부문의 규제 완화는 향후 베트남 물류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됨
 - 베트남의 GDP는 2007년 이후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같은 기간 무역량은 3,500만 달러가 증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
 - 향후 베트남의 무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 물류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 및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물류부문의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지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www.oxfordbusinessgroup.com, 2017.7.17. / english.vietnamnet.vn, 2017.7.17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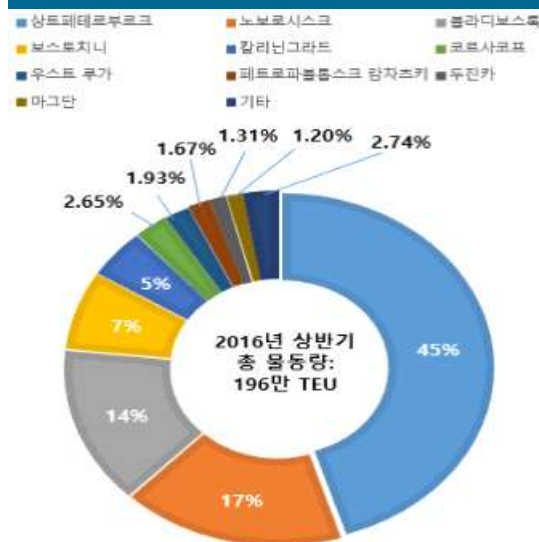
김동환 연구원

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상트페테르부르크항 컨테이너 물동량, 올 상반기 러시아 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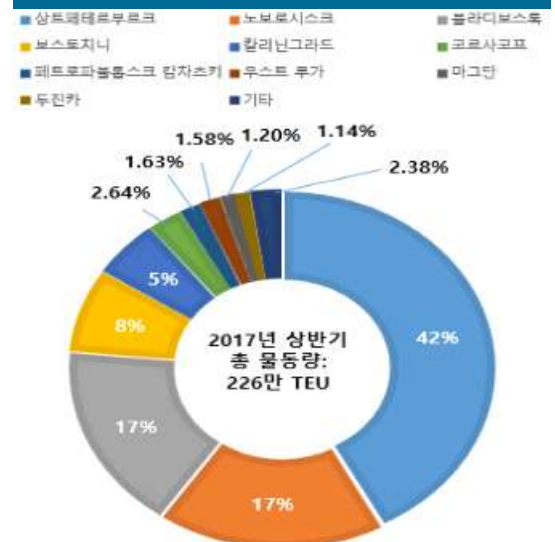
- 1~6월 러시아 컨테이너 전용항만의 물동량이 전년대비 15.3% 증가한 226만 TEU를 기록함
 -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952,060 TEU로 전년대비 15%, 수입은 971,570 TEU로 17.3%, 통과 물동량은 27,010 TEU로 12.8%, 연안 물동량은 311,880 TEU로 10.5% 증가함
- 러시아 연방 해상상업항만협회(Association of Sea Commercial Ports of the Russian Federation) 컨테이너 물동량 데이터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이 1위를 차지함
 -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은 953,910 TEU로 전년대비 7.7% 증가했으며, 전체 항만 물동량의 42.16%를 차지함
 - 노보로시스크 항만은 17.46% 증가한 395,110 TEU로 2위를 차지했으며, 페트로파블롭스크-캄차츠키 항만은 36,780 TEU로 12.4% 증가하여 8위에서 7위로 도약함
- 1월~6월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은 물동량 증가율이 34%로 1위를 차지함
 - 칼리닌그라드 항만은 33.7%로 2위를, 아조프 항만은 28.1%로 3위를 기록함
 - 반면 로스토프나도누 항만은 91.9%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, 바니노는 84.8%, 나호드카는 39.2% 감소함

2016년 상반기 항만별 물동량 비중



자료 : tass.ru

2017년 상반기 항만별 물동량 비중



자료 : tass.ru

참고자료 : tass.ru, 2017.7.17.

김영지 연구원

051-797-4682, umjikim@kmi.re.kr